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교회소식

◆ 모임

1. 목회 정책 협의회 / 11일(토) 오후 2시 802호

◆ 알림

1. 세례식 신청 - 금년도 여섯 번째 세례식인 12월 세례(세례, 입교, 개종, 유아세례)식이 12월 10일(주일)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 *세례 청원서 작성 및 신청 기간: 11/5-12
- *세례교육: 4주교육(11/12, 11/19, 11/26, 12/3) 낮 12시 20분 609호
- *세례문답: 12/3(주일) 오후 1시 30분 609호
- *신청접수처: 교육부서 및 교회 사무국
- *기타 궁금한 사항은(세례교육부 010-7743-3223)로 문의바람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9시-17시30분	403호	유아부	11시-12시10분	706호
유치부	11시-12시10분	702호	유년부	11시-12시10분	701호
초등부	11시-12시10분	601호	중등부	9시-10시	501호
고등부	9시-10시20분	101호	청년부	15시30분-17시	601호
신혼가정부	12시30분-14시	606호	사랑부	10시30분-11시30분	603호
영어성경부	10시10분-11시	802호	소망부	10시10분-11시	102호
신앙강좌부	12시15분-12시55분	802호	새가족부	10시10분-14시	602호
세례교육부	12시10분	609호			

부 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한 현종필 최중국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교육전도사 김예지 배인혜 김가은 협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선교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복(인도), 스브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또, 수레시, 수바스,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통,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우리의
비전
(vision)**

-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서울교회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위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Dal-ig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 요한일서 4:7-13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까닭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결론 맺습니다.

1. 하나님 사랑의 증거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신앙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전제된 사항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대속제물 삼으신 일입니다.(9,10) 독생자를 주신 은혜를 대속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贖[속]’이라는 용어는 조선 시대 법인 경국대전에 속전, 속량, 속죄, 대속 등의 용어들로 등장합니다. 이는 무엇을 위해 값을 치르는 행위를 의미했습니다. 먼저, 죄 값으로 돈을 내는 경우를 贖錢[속전], 대신 매를 맞는 것을 贖杖[속장]이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贖罪[속죄]한다’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賤人[천인]이 그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인과 관에 바치는 자기 몸값을 贖錢[속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죄값을 지불하셔서 죄와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代贖[대속]의 은혜라고 합니다. 죄인을 위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는 것도 은혜요 예수의 피를 보시고 그것을 우리 죄값으로 받아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본문 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에 늘 감격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2. 사랑받은 사람의 삶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12절에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살면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참모습이 드러나 보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계시적 존재로 살아야 하고 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에 투영하는 계시공동체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 때 그때 우리 신앙의 정당함은 인정받게 되고 예수께서 우리 구원의 주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사랑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원한 소망까지 누리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 사랑으로 실천하면 우리 모습에서 하나님 모습 나타나게 되고 이 모습을 통해 지켜보는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3. 전진된 사랑

20-21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형제는 나와 함께 같은 시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한정의 모든 사람을 사랑할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여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매우 거칠고 험했습니다. 반대도 극심했고 중상모략과 음해도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순간도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기독교의 특성은 공동체성입니다. 서로 낯선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독특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낯선 사람들이 만나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영성의 가장 큰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영성, 형제 사랑의 진정성이 우리 가장 강점이며 특성입니다. 이 능력이 회복되어야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 갈 수 있게 됩니다. 미움, 분열, 갈등, 상처 등을 극복하는 십자가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시 간	인 도	기 도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노제현 장로	III 오후 2시	현종필 목사	노제현 장로
II 오전 11시	장석남 목사	김광태 장로			

입례송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시 113:1-2...	인 도 자
* 찬 송	14(1, 4절)...	* 신앙고백		다 함 께
* 신앙고백		* 경배와 찬양		찬 양 팀
* 성서 교육	59(시 136)...	기 도		말 은 이
* 송 영	4	환영과 축복		찬 양 팀
기 도		교회 소식		인 도 자
찬 송	190...	성경 봉독	요일 4:7-13...	말 은 이
성경 봉독	요일 4:7-13...	찬 양		찬 양 대
성도의 교제		설 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손달익 목사
봉헌		결단의 기도		다 함 께
* 봉헌송	634...	봉 헌		다 함 께
* 봉헌기도		* 봉헌기도		설 교 자
찬 양		* 파 송		찬 양 팀
새가족 환영		* 축 도		설 교 자
설 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손달익 목사	* 후 주		찬 양 팀
* 찬 송	563...			
* 축 도				
* 주기도송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전지희	김진이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최유현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이주희	윤주일	3부 예배 신디시스트	이요한	
찬양예배	베들레헴	박래경	안효주	박수강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 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일 4:7-8)		
수요 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금주의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조현경	성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찬 양 예 배

- 새가족위원회 헌신예배 -

시 간	인 도	기 도	시 간	인 도	기 도
오후 4시30분	노제현 장로	남태영 권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98:1	인 도 자
찬 송	15	다 함 께
기 도		말 은 이
찬 송	288	다 함 께
성 경	행 1:1-11	임승한 집사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사명자로 사는 신앙” ...		손달익 목사
사역보고		김은석 집사
특 송		새가족위원회
* 찬 송	310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시 간	인 도	기 도
I 오전 11시	김익환 목사	박해정3 권사			
II 오후 7시	김익환 목사	유요종 권사			

성 경	눅 5:1-7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빈 배에서 만선으로” ...		김익환 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박수강·김복희2·신아령
설 교 손달익, 조원영 목사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찬 양 찬 양 팀
설 교 현종필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